

“복구, ‘람사르습지 도시’로 거듭나야”

●‘광주 1호·전국 26호’ 람사르습지 등록 기념 토론회

국내외 환경단체 참여 평두메습지 보전·이용 방안 논의
“과학적 모니터링 통한 체계적 관리·습지 지키며 공생”

‘광주 1호·전국 26호’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평두메습지의 효율적 보전·이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복구가 ‘람사르습지 도시’란 브랜드와 사명감을 갖고 습지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주 복구는 11일 오전 9시30분 용봉동 행복어울림센터에서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서승오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장과 광속국 자연과 사람 대표가 각각 ‘동아시아 람사르습지 운영 현황과 정책 제언’, ‘평두메습지 보호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센터장은 타이페이의 관두습지와 홍콩의 마이포습지를 우수사례로 꼽으며 “특화된 전문 담당자를 두고 과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 대표는 습지 보호를 전제로 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의 골자는 민·관·학 등을 한데 모은 ‘지역관리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평두메습지가 갖는 가치가 보다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생태·마을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곽 대표는 “함께가 아니면 ‘지속’도 될 수 없다”며 “평두메습지가 위치한 광주 복구가 ‘람사르습지 도시’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영선 부산대학교 겸임교수를 좌장으로 김일권 광주연구원 박사, 이정환 복구청 기후환경

과장, 김도웅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 공은주 평촌마을 운영위원,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생태보전위원장, 남동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도심 속 자연의 보고’임을 인정받은 평두메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습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련 사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복구는 제안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구체적인 보전·이용

방안 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평두메습지는 복구 화양동 530번지 일원의 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묵논습지이자 해발고도 240m에 위치한 산지형 내륙습지이다. 2만2천600㎡ 규모의 습지에는 낙지다리·개대항 등 희귀 식물과 솔부엉이·소쩍새·월양 등 천연기념물, 수달·삵·담비 등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총 786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5월13일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광주 1호·전국 26호’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광주 1호·전국 26호’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무등산 평두메습지의 효율적 보전·이용 방안을 논의하는 주인토론회가 11일 오전 복구 용봉동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열렸다. (광주북구 제공)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5:28 해질 19:49
🌙 달돋이 11:10 달짐 23:25

인천	22/28	서울	23/31	대전	22/31	전주	22/31	광주	22/31	목포	22/28	흑산도	22/27	제주	23/28	여수	23/27
춘천	22/32	강릉	24/30	대구	23/32	부산	23/29	광주	22/31	목포	22/28	흑산도	22/27	제주	23/28	여수	23/27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40 🧺 빨래 30 🚗 세차 30 🏃 운동 60
 호린날도 자외선 차단제 실내건조 좋아요 내일 비 예보 수분 보충 충분히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1.0
남해 앞바다	0.5-1.5	1.0-2.0
남해 서부	0.5-2.0	1.5-2.5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7월 13일(토)	☁️(23/31)	☀️(24/33)	☁️(23/28)	☁️(23/31)	☁️(24/29)
14일(일)	☁️(23/31)	☀️(24/32)	☀️(21/27)	☁️(22/29)	☁️(25/30)
15일(월)	☁️(24/30)	☀️(24/30)	☀️(22/28)	☁️(23/31)	☁️(26/31)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산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김명수 의장·이우형 부의장

광산구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의정활동에 나선다.

11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제233회 임시회에서 김명수·이우형 의원을 각각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2년을 함께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임 등 원 구성을 마쳤다. 광산구의회는 후반기 ▲좋은 정책 ▲신뢰받는 의정 ▲살기 좋은 광산을 위한 더 강력한 협치와 협력으로 광산의 미래 가치를 높여 갈 방침이다.

김명수 의장은 “광산의 자긍심을 견고히 쌓아가는 과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근기자

전남지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 급증

6월 기준 79명 감염 전년비 2.1배 ↑...18세 이하 항원검사비 보험 적용

전남지역 내 급성 호흡기 감염증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군 감염증’ 환자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감염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6월29일 기준 도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군 감염증 환자는 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배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7-12세 25명(31.6%), 19-49세 21명(26.6%), 13-18세 16명(20.3%), 기타 17명(21.5%) 순이다. 학교생활을 하는 학령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 같은 기간 전남에선 2019년 18명, 2020년 58명, 2021년 14명, 2022년 33명, 2023년 37명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군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019년 3천5명, 2020년 3천203명, 2021년 551명, 2022년 623명, 2023년 1천90명, 2024년 4천881명이 발생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군 감염증은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과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발열, 기침, 두통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심

하면 폐렴까지 진행될 수 있다. 별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실천 등을 잘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주간 입원환자가 250명 이상인 상태가 2주간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마이코플라스마 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행했다.

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급성 호흡기 질환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박현정 동구의회 ‘공무원 직무소송조례안’ 발의

정당한 업무 과정서 고소당할 경우 최대 1억 지원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진보당·사진) 의원이 ‘광주 동구 직무 관련 소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11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등 악성민원이 3개월간 3천건이 넘어가고, 악성민원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주목했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위법·부당행위도 민원인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원 신청 및 소송비용 지원 범위 ▲소송비용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 직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박현정 의원은 “동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행정적 업무의 질이 높아져야만 국민들이 제공급받는 행정 서비스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정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파크골프 무료레슨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전일파크골프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